

옥수수 시세 하락에 따라 전반적인 곡물시세 약세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콘벨트 작황 호조

최근 미산 옥수수시세는 콘벨트지역의 옥수수 작부상황의 호조와 막대한 재고누증, 수출물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8월20일 현재 미산 옥수수시세는 근월도 선적기준으로 C&F 톤당 86~88불로 1972년의 가격폭락 이후 최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때 84~85불 수준까지 떨어졌던 미산 옥수수시세가 2~3불 수준의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산 옥수수시세가 크게 떨어지면서 Export Business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즉 최근들어 대만, 한국, 멕시코 등 수입국들이 미산 옥수수에 대한 구매입찰을 다소 늘려나가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미산 옥수수시세가 근래보기도 못한 낮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옥수수 작황이 지난해에 이어 대풍작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옥수수의 경우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하여 2억2500만톤을 생산했으나 수출은 크게 부진하여 재고량이 누증되고 있는데 금년도 역시 작황호조로 인해 2억1100만톤 생산수준에 이를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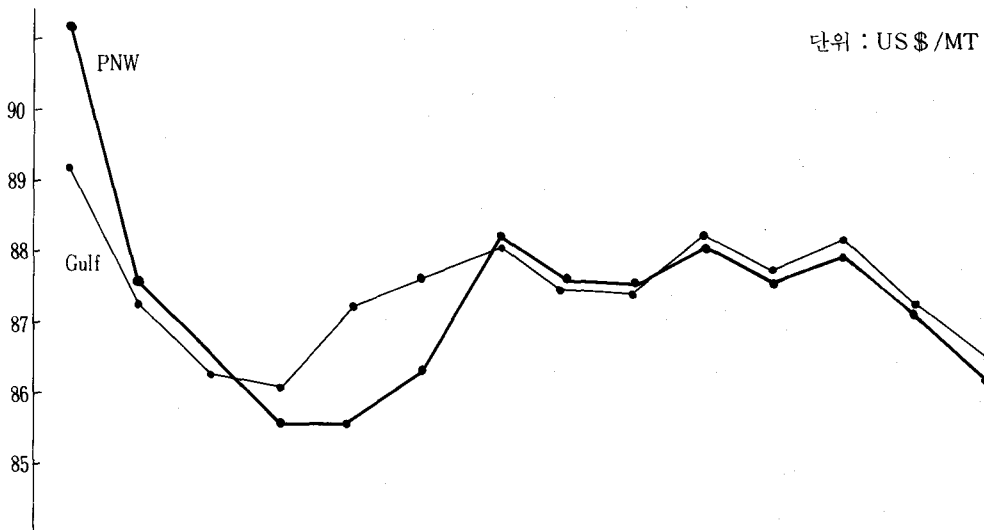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세하락이 가속되고 있다.

8월11일 USDA에서 분석한 미국 옥수수 생육상황을 보면 현재 한발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조지아주와 노오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벨트지역들이 보통(Fair)이상의 양호한(Good, Excellent)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8월10일 현재 콘벨트 17개주의 옥수수 생육단계는 액상의 유액이 서서히 부드러운 고품질로 변화되어가는 Dough-Stage에 54%가 들어가 있고 이는 지난해의 48%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다. 그리고 Dough-Stage에서 딱딱하게 변화되어가는 Dent-stage에 들어있는 옥수수 역시 20%로 지난해 같은날의 14%에 비해 양호한 실정이다. 결국 미산 옥수수작황은 지난해에 이어 대풍작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옥수수시세 역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EBP 옥수수 확대적용검토

앞으로 미산 옥수수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는 소련의 구매동향으로 어느때 어느만큼의 구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1. 옥수수 시세동향



8 월	1	4	5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PNW	91.26	87.56	86.52	85.55	85.95	86.44	88.21	87.72	87.72	88.11	87.52	87.92	87.03	86.24
Gulf	89.15	87.37	86.39	86.19	87.37	87.87	88.06	87.57	87.57	88.36	87.77	88.16	87.28	86.49

옥수수 재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켓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 현재 미국의 재고수준을 보면 사상 최고수준인 1억94만톤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수가 한계수준에 와있고, 수출수요 역시 타국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밀려 급격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타개책이 없는한, 재고누증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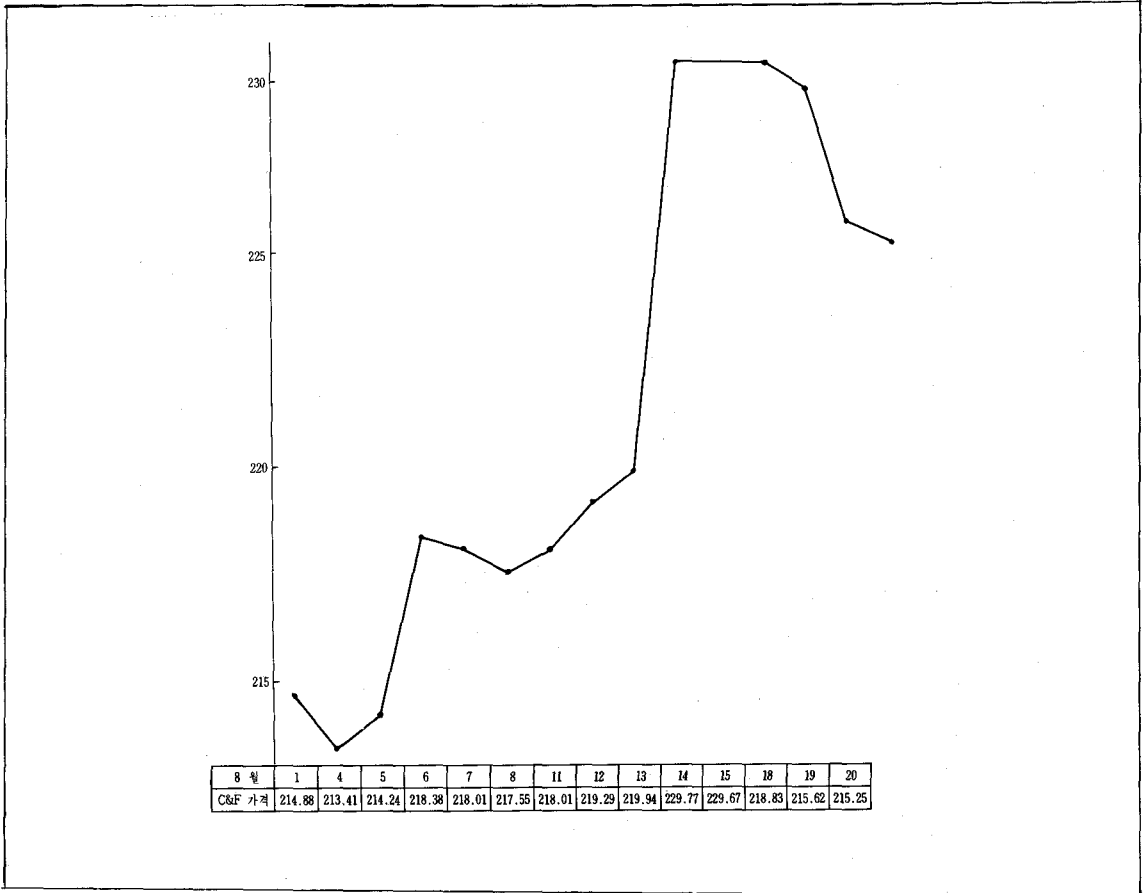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최근 미국 의회는 옥수수에 대해서도 수출보너스계획(Export Bonus Program)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교정책 및 국제공정거래질서 등의 문제로 인해 옥수수에 대한 확대적용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미국은 지난해 EEC지역이 수출장려책으로 자국내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불해 가면서 미국시장을 잠식해오는데 대해 반발하여 EEC와 수출경합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에 미산 소맥을 수출하는 수입업자들에게 현물로 보너스를 지불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구매자중 하

나인 소련은 미국이 특정지역에만 수출 보너스를 지불하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고,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지난주 소련에 대한 소맥판매에 대해서도 수출 보너스를 지불할 것을 결정 발표하였다. 현재 소련은 미소곡물협정에 따라 한해 옥수수와 소맥을 합쳐 800만톤의 구매 의무량을 가지고 있으나, 옥수수의 경우 680만톤 이상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면서도 소맥은 15만톤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은 소련에 대한 소맥수출시 수출의 적용을 약속하면서 미소곡물협정의 이행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보너스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해 소련의 소맥구매가 자극을 받아 수출량이 증가될 것인지는 의문시되고 있으며, 만일 수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물량면에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상하양원에서는 옥수수에 대해서도 확대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MT



● 불붙는 곡물전쟁

미국이 소련에 대한 소맥수출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과 곡물수출경쟁국인 캐나다, EC, 호주 등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미국의 사료용 곡물수출 덤핑행위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옥수수 수출국은 태국, 중공,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으로 급격한 미산 옥수수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최근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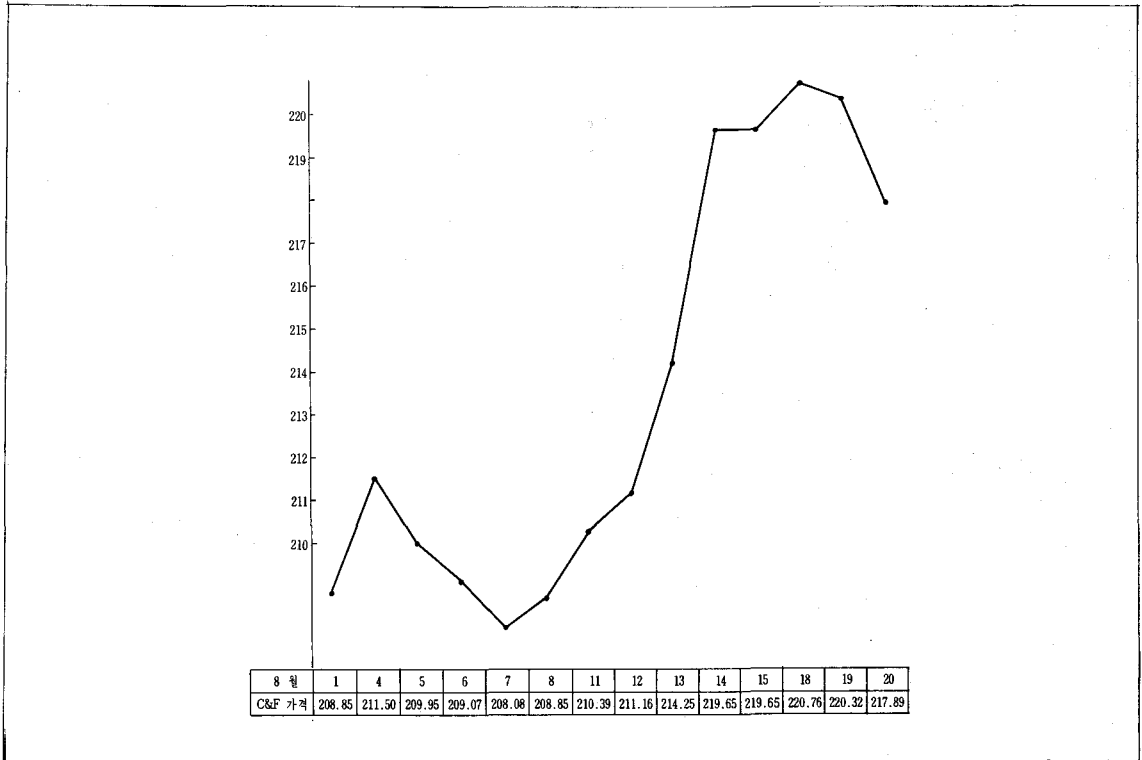
금년도 태국의 옥수수사정은 태국 중앙부지역의 한발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수확이 크게 감소

하였는데, 즉 지난 7월에 발표된 현지 레포트(제 1회 수확예상)에 따르면 금년도 생산량은 390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생산량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420만톤수준에는 못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태국산 옥수수의 제 1회 수확예상량이 450만톤, 최종수확예상량이 505만톤(실제로는 520만톤정도로 추정됨)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태국산 옥수수의 대폭적인 감소와 미산 옥수수시세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금년 10월 일본이 태국과 내년 1월선적 이후의 옥수수를 대상으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가격결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중공은 강우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MT



히 떨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생산량은 약 7,200만톤으로 약 12.5%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과 마찬가지로 중공 역시 금년도 후반기(11월~4월선적) 장기공급계약을 일본과 8월중순경에 교섭할 예정이나 미산 옥수수시세의 급락으로 인해 어려워질 전망이다.

● 기타 곡물시세 약세

최근 이와 같은 국제곡물시장의 호전과 더불어 또하나의 호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원화절상 문제로 향후 원화절상이 진행될 경우 원료를 주로 해외에서 수입해오며 내수판매에 의존하는 사

료산업은 유리해질 전망이다, 자금결재 역시 At Sight 보다는 Usance구매가 유리해지며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고 사후에 물량인도시 자금을 결재하는 장기공급계약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종합상사들이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 취했던 구매방식중의 하나이다.

또한 옥수수시세의 하락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기타곡물시세 역시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맥은 C&F 톤당 80~85불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수수시세 역시 80~85불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수수 및 사료용 소맥 등 기타곡물시세는 옥수수시세의 약세기조에 힘입어 약보합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소비자들은 깨끗한 계란과 닭고기를 즐겨 찾습니다.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